

		<b>보 도 자 료</b>		전주국제영화제
배포일	2025. 03. 12.	보도 요청일	2025. 03. 12.	
답 당	홍보미디어팀	취재 문의	063)280-7912 publicity@jeonjufest.kr	

## 도발적인 개성으로 돌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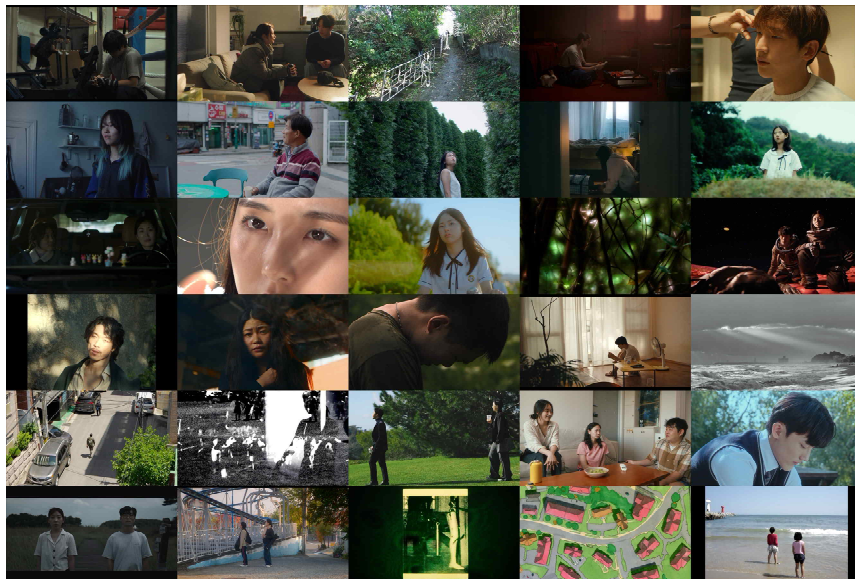
###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 한국단편경쟁 및 지역공모 선정작 공개

- 한국단편경쟁 극영화 23편, 다큐멘터리 3편, 실험영화 3편, 애니메이션 1편 총 30편 선정
- 한국단편경쟁 선정작 심사평 “두려움과 강박을 각자의 방식으로 돌파”
- 지역공모 5편 선정... 창작자의 독창성과 장르적 실험에서 지역 영화의 잠재성 확인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한국단편경쟁 및 지역공모 선정작을 공개했다.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은 지난 11월부터 1월까지 1,510편 모집되어 2년 연속 최다 출품 기록을 경신한 바 있다.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심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극영화 23편(극영화-애니메이션 1편 포함), 다큐멘터리 3편, 실험영화 3편, 애니메이션 1편까지 총 30편을 최종 선정했다.



△ 한국단편경쟁 상영작 스틸컷(제목 하단 표 참조/가나다순)

이번 한국단편경쟁 예심에는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상영작 <럭키, 아파트>의 강유가람 감독, 영화평론가이자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 상영작 <늦은 산책>(2023)을 공동 연출한 바 있는 김병규 감독,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 감독상 수상작 <트랜짓>(2022)을 연출한 문혜인 배우 겸 감독,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부문 수상작인 <내가 사는 세상> 이후 꾸준

히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최창환 감독 등 전주국제영화제를 거쳐 간 영화감독 4인과 김보년 서울아트시네마 프로그래머 겸 영화평론가, 다수의 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정지혜 영화평론가, 전주국제영화제 문석 프로그래머까지 총 7인이 참여했다.

심사위원들은 올해 한국단편경쟁 출품작들에 대해 “영상을 제작하는 일이 몹시 당연하게 여겨지는 영화 제작 환경 속에서 ‘단편영화’를 만드는 실천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재고하게 되었다”라며 심사평의 운을 뗐다. 이어서 출품 경향에 대해서 “카메라를 든 ‘나’와 세계의 관계”, “완성과 미완성의 관계”에서 “모종의 강박과 두려움이 발견”된다고 밝혔다.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두려움과 강박을 각자의 방식으로 돌파하는 작업에 주목했다”며 선정작 30편에 대해서는 “카메라를 든 주체와 세계 사이에서, 완성과 미완성 사이에서 협상하고 타협하고 토론하며 두 가지 방향성을 나란히 포착하고자 한 결과물”이라 덧붙였다.

한편, 전북 지역에 주소지를 둔 감독, 제작자 혹은 학교 재학생의 작품이나 전북 지역 로케이션 비중이 50% 이상인 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공모에는 단편 39편, 장편 7편 총 46편이 출품된 바 있다. 이중 단편에는 송에스더, 임연주 감독의 <갈비>, 소지인 감독의 <땀>, 김해진 감독의 <불쑥>, 노희정 감독의 <자궁메이트>, 장편에는 김태휘 감독의 <빈집의 연인들>로 총 5편이 최종 선정되었다. 5편 중 <불쑥>은 한국단편경쟁, 나머지 4편은 코리안시네마로 상영된다.



△ 지역공모 선정작 스틸컷(제목 하단 표 참조/가나다순)

지역공모 심사에는 전주를 기반으로 영화 커뮤니티와 영화문화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이하늘 무명씨네 대표,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 상영작 <유령극>과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 상영작 <서신교환>의 김현정 감독, 전주국제영화제 문석 프로그래머가 참여했다.

지역공모 출품작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은 “다양한 주제와 형식이 돋보였으며, 지역 창작자들의 꾸준한 참여와 실험적인 시도가 인상적이었다”라고 평했다. 이어서 선정된 5개 작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가족·사회적 틀을 벗어난 새로운 관계 쌓기를 시도한다. 특히, 여성의 몸과 감정, 선택을 전면에 내세운 이야기들이 돋보이며, 때로는 도발적으로, 때로는 담담하게 경계를 확장해 나가는 흐름이 인상적이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번 지역공모에서는 창작자들의 고유한 색채와 탐색을 통해 지역 영화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지역공모 선정작들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공개된 한국단편경쟁 상영작 30편과 지역공모 상영작 5편은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4월 30일(수) ~ 5월 9일(금)까지 전주 영화의거리를 비롯한 전주시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 선정의 변

올해 초 배급사의 도움 없이 직접 극장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개봉한 어느 독립영화는 며칠 전 최종관객 수 1,184명으로 상영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숫자라고 위안하기엔 영화가 갖춘 매력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입니다. 최근 각기 다른 경로로 개봉한 다른 독립영화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제가 즐겁게 본 한국 독립영화 개봉작들의 관객수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431명 1,385명, 844명, 698명....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 부문에 출품된 영화는 역대 최다편수인 1,510편입니다. 단순히 계산하겠습니다. 한국 독립/단편영화란 영화를 보는 사람보다 만드는 사람이 많은 생태계를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런 생태계가 되어 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 문단에서 쓰인 예시는 거의 허구이며 현실의 사례를 연상시킨다면 전적인 우연입니다.)

이는 고작해야 숫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 앞에 주어진 선명한 숫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영화제작에 참여하는 창작의 민주주의가 실현됐다는 말도, 반대로 영화제작은 재능 있는 소수만 해야 한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이 숫자는 다만 영화(제작)의 아주 근본적인 역할에 대한 고민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만듭니다. 영화를 만든다는 행위는 어떤 충동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 충동은 왜 카메라와 마이크라는 매개로 해소되어야 하는 걸까요? 무엇보다 만들어진 영화는 무엇을 공유하고 전달해야 하는 걸까요? 7명의 심사위원은 영상을 제작하는 일이 몹시 당연하게 여겨지는 환경 속에서 '단편영화'를 만드는 실천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재고하게 되었습니다. 출품된 영화들의 경향을 어설픔게 진단하기보다는 모종의 강박과 두려움이 발견되는 두 가지 상반된 관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카메라를 든 '나'와 세계의 관계입니다. 많은 극영화 속 인물들이 사회적인 관계를 단절하고 지극히 사적인 영역(가족, 연인, 상실된 기억)의 문제에 몰두하거나 사회와의 접촉을 신경질적으로 끊어버리거나 아예 폭파하는 선택을 취하곤 했습니다. 영화를 통해 낯선 타인과 만나는 일은 어느덧 어렵고 생경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적잖은 영화들이 사회적 공간을 조형하는 대신 영화를 만드는 현장에 천착하고, 직접 대면하는 대신 우리 주변에 산재한 영상과 녹음 매체를 통해 타인과의 만남을 시도하는 데서 지금 이곳에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감수성과 어떤 두려움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과 공간에 안전하게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끈기 있게 대상을 포착하는 다큐멘터리 작품의 편수가 줄어든 것 또한 우려할 만한 지점이라고 느낍니다. 타자의 삶을 관찰하고, 카메라와 피사체가 접촉하는 관계를 성찰하는 취재와 기다림의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그 대신 서로 무관해 보이는 역사적 사료들을 특유의 지성적인 몽타주를 통해 영화 안에서 재구성하는 이른바 에세이적이라고 부를 만한 시도들이 확연히 늘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작품들이 선보이는 자유로운 사유 체계와 탄력적인 형식에 매혹되면서, 이러한 흐름이 '나'의 직관과 관심사를 빠르게 단편영화라는 작품의 단위로 옮겨야 하는 창작자들의 강박과 조바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완성과 미완성의 관계입니다. 이제 단편영화에 많은 제작비가 투입되고 전문적인 기술 스태프와 유명 배우가 출연하는 것은 어색하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단편영화의 시청각적 요소가 다양해지는 것은 물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술적 완성도의 균일화가 단순히 영화 내적인 변화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단편영화는 영화 학교와 제작지원 제도, 영화제 상영과 수상결과, 심사위원의 리뷰와 관객들의 즉각적인 평가라는 회로에 갇혀 있고, 이 회로는 모든 작업물이 그 자체로 완결된 결과물이 되기를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제도권 영화감독이 되는 경로가 준수한 단편영화로 '업계'의 눈도장을 찍는 것 외에는 희박해진 환경도 이 회로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모두 평가가 완료된 작업물을 내놓고 완성된 감독이 되려고 하는 동안 어쩌면 한국 단편영화는 미완성과 과정에 속할 수 있는 수행적 가능성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단편영화는 해결되지 않는 내러티브, 어설픈 촬영과 조명, 무뎌진 연기와 움직임, 조악한 촬영 환경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만의 방법론과 규칙을 제시할 수 있는 실천의 현장입니다. 심사위원들은 창조적인 문법의 가능성을 간과하고 기술적 완성도로 눈가림하는 결과물 대신 어색하고 단조로운 완성도일지라도 창의적인 가능성에 영화를 내거는 모험적 시도에 이끌렸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한국 단편영화'에 드리운 이와 같은 두려움과 강박을 각자의 방식으로 돌파하는 작업에 주목했습니다. 여러 명의 심사위원이 협력하는 만큼 어느 한쪽에 치우쳐 일방적인 목록을 작성할 순 없었습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견해를 내세우는 것만큼 반(反)영화적인 절차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한국단편경쟁 부문에 선정된 30편의 영화는 카메라를 든 주체와 세계 사이에서, 완성과 미완성 사이에서 협상하고 타협하고 토론하며 두 가지 방향성을 나란히 포착하고자 한 결과물입니다. 소중한 영화를 출품하고 그 영화에 참여한 모든 분께 감사와 존중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단편경쟁 예심 심사위원 김병규, 강유가람, 김보년, 문혜인, 정지혜, 최창환, 문석

##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지역공모 선정의 변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지역공모에는 단편 39편, 장편 7편이 출품되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형식이 돋보였으며, 지역 창작자들의 꾸준한 참여와 실험적인 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단편 4편, 장편 1편이 선정되었으며, 출품작들은 각자의 개성과 시도를 반영하며 완성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지역공모에 선정된 작품은 송에스더·임연주 감독의 <갈비>, 소지인 감독의 <땀>, 김해진 감독의 <불쑥>, 김태휘 감독의 <빈집의 연인들>, 노희정 감독의 <자궁메이트>입니다. 한편, 올해 지역공모에서는 오랜만에 장편이 선정되었다는 점도 의미가 큼니다. <빈집의 연인들>은 도발적인 서사 설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연출력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지역 창작 장편 영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올해 선정된 작품들은 기존의 가족·사회적 틀을 벗어난 새로운 관계 쌓기를 시도합니다. 특히, 여성의 몸과 감정, 선택을 전면에 내세운 이야기들이 돋보이며, 때로는 도발적으로, 때로는 담담하게 경계를 확장해 나가는 흐름이 인상적입니다.

송에스더·임연주 감독의 <갈비>는 가족 간의 미묘한 갈등을 아이러니한 상황을 통해 재치 있게 풀어냅니다. 간결한 연출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대사와 상황들이 쌓이며,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이 인상적입니다. 소지인 감독의 <땀>은 서로 다른 결핍을 가진 세 여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 관계의 틈과 미묘한 정서를 포착합니다. 가족이지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거리감 속에서, 배우들의 리드미컬한 연기와 감정 표현은 빛을 발합니다. 김해진 감독의 <불쑥>은 엄마의 죽음과 이모의 출산이라는 대조적인 사건을 통해 삶과 죽음의 경계를 탐구하는 방식이 신선합니다. 감각적인 연출과 섬세한 서사가 더해져 인상적인 성장 서사를 완성합니다. 김태휘 감독의 <빈집의 연인들>은 흥미로운 설정과 안정적인 연출이 조화를 이루며, 배우들의 연기가 이를 더욱 뒷받침합니다. '빈집 털이'라는 엉뚱한 관계에서 출발해 긴장감과 웃음을 거쳐 점차 교감으로 도달하는 방식이 매력적입니다. 노희정 감독의 <자궁메이트>는 여성의 몸에 대한 시선을 독창적인 설정으로 풀어냅니다. 블랙 코미디적 요소를 기반으로, 인물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이야기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올해 지역공모 출품작들의 주요 경향을 살펴보면, 감정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표현이 두드러졌으며, 관계성을 중심으로 한 솔직한 서사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독창적인 설정과 장르적 실험을 통해 새로운 형식을 탐색하려는 시도도 활발했습니다.

이번 지역공모에서는 창작자들의 고유한 색채와 탐색을 통해 지역 영화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시도들이 이어지길 기대하며, 모든 출품작 감독님과 제작진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공모 심사위원 김현정, 이하늘, 문석

##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 선정작

가나다순

작품명	감독	장르
〈건투〉 <i>Toe to Toe</i>	신유석 SHIN Yuseok	극영화
〈겨우살이〉 <i>mistletoe</i>	황현지 HWANG Hyeonjee	극영화
〈나무가 흔들릴 때 마음이 찾아온다〉 <i>When the Trees Sway, the Heart Stirs</i>	이지윤 LEE Jiyeon	다큐멘터리
〈당신이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i>More than you can imagine</i>	권지용 KWON Jiyong	극영화
〈두 시간〉 <i>Two Hours</i>	이재원 LEE Jaewon	극영화
〈떠나는 사람은 꽃을 산다〉 <i>Those who leave buy flowers</i>	남소현 NAM Sohyeon	극영화
〈로타리의 한철〉 <i>In Our Day</i>	김소연 KIM Soyeon	극영화
〈미루〉 <i>milu</i>	박예지 PARK Yeji	극영화
〈별나라 배나무〉 <i>A Pear Tree In The Star Village</i>	신율 SHIN Yul	다큐멘터리
〈불쑥〉 <i>SLOWLY</i>	김해진 KIM Haejin	극영화
〈사라진 계절〉 <i>Vanished Season</i>	김대한 KIM Daehan	극영화
〈세개의 방향〉 <i>The Third Direction</i>	이서현 LEE Seohyun	극영화
〈소양강 소녀〉 <i>A Girl Who is Afraid of Turning to Stone</i>	윤오성 YOON Ohseong	극영화
〈숨소리와 속삭임〉 <i>Breathing and Whispering</i>	전준혁 JEON Junehyuck	실험영화
〈스포일리아〉 <i>Planet Spoilia</i>	이세형 LEE Se-hyung	극영화/ 애니메이션
〈악령〉 <i>The Possessed</i>	손태겸 SON Taegyum	극영화
〈엔진의 심폐소생〉 <i>Reviving The Engine</i>	정혜인 JUNG Hyein	극영화
〈연기나는 숲〉 <i>Quiet Fires</i>	이다현 Daniel LEE	극영화
〈옆집 아기〉 <i>My neighbor baby</i>	최준식 CHEY Zunseek	극영화
〈오른쪽 구석 위〉 <i>Top Right Corner</i>	이찬열 LEE Chanyeol	극영화

〈외출〉 <i>The Empty Pot</i>	김규동 KIM Gyudong	극영화
〈우리가 사라진 모든 방법들〉 <i>All The Ways We Disappear</i>	송시영 SONG Siyoung	실험영화
〈우리의 거리〉 <i>Still Sunset</i>	장근영 JANG Keunyoung	극영화
〈월드 프리미어〉 <i>World premiere</i>	김선빈 KIM Seonbeen	극영화
〈인라인〉 <i>Inline</i>	임근영 LIM Keunyoung	극영화
〈인류존속의 미스터리 그리고 두 연인〉 <i>Mystery of humanity continuing, and Lovers</i>	장현서 JANG Hyeonseo	극영화
〈커뮤니티〉 <i>COMMUNITY</i>	박유진, 진현정 PARK Youjin, JIN Hyeonjeong	극영화
〈흙집이 이어진 사이〉 <i>Delay Via Damage</i>	이서진 LEE Seo-jin	실험영화
〈Being and Nothingness〉 <i>Being and Nothingness</i>	김지우 KIM Jiwoo	애니메이션
〈K에게〉 <i>Dear S</i>	이가은 LEE Ga-eun	다큐멘터리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지역공모 선정작

가나다순

작품명	감독	상영 섹션
〈갈비〉 <i>Galbi</i>	송에스터, 임연주 SONG Esther, LIM Yeonju	코리안시네마/단편
〈땀〉 <i>The Roots</i>	소지인 SO Ji-in	코리안시네마/단편
〈불쑥〉 <i>SLOWLY</i>	김해진 KIM Haejin	한국단편경쟁
〈빈집의 연인들〉 <i>The Burglars</i>	김태휘 KIM Taehwi	코리안시네마/장편
〈자궁메이트〉 <i>Womb Mates</i>	노희정 NOH Heejeong	코리안시네마/단편